

‘아리랑’ 관련 자료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학년 44~45쪽
제재명	아리랑	지도서	4학년 304~305쪽

1. ‘아리랑’이란

‘아리랑’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또는 ‘아리아리 쓰리쓰리...’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처럼 ‘아리랑’ 또는 이와 유사한 음절을 후렴구에서 반복적으로 노래하는 일군의 민요를 가리킨다.¹⁾ ‘아리랑’ 계통의 노래가 불리는 곳을 점으로 찍으면 한반도가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아리랑’은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로 자리 잡고 있다. ‘아리랑’은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제목 앞에 특별한 단서를 달지 않고 그냥 ‘아리랑’이라고 부르면 일반적으로 경기 명창들이 부르는 통속 민요 ‘아리랑’을 가리키고, 이 곡을 ‘본조 아리랑’이라고 부른다. 오늘날에는 많은 아리랑을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정선 아리랑’, ‘진도 아리랑’, ‘구조 아리랑’같이 제목 앞에 지명이나 다른 의미의 말을 덧붙여 부른다.²⁾ 이 같은 아리랑은 한반도뿐 아니라 해외 한민족 사회에도 널리 퍼져 있으며 현재 전승되는 ‘아리랑’의 종류와 곡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약 60여 종 3천 백여 수에 이른다고 말한다.³⁾ ‘아리랑’은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한 기록물이며 우리나라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 농촌부터 도시, 국내에서 해외까지 나이와 장소를 불문하고 언제나 불리는 노래이다. ‘아리랑’은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으며, 지역별로 특색 있게 재창조되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아 오다 마침내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재창조되고 있다는 점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라는 후렴구만 들어가면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다는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2년 12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2. ‘아리랑’의 유래와 역사

‘아리랑’은 깊은 역사만큼 유래와 어원에 대한 내용이 많다. 그래서 ‘아리랑 어원 백설’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이다. ‘아리랑’은 듣고 기억하기 쉬운 형식이면서 동시에 지어 부르기 쉬운 형식일 뿐 아니라 구조면에서도 안정성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이유로 누구나 ‘아리랑’을 만들기가 쉬웠다. 또한 ‘아리랑’에 고장의 지명이나 충신 효자 얘기를 관련지어 ‘우리의 아리랑’ 사연을 만들어 내면서 많은 ‘아리랑’의 기원설과 어원설이 생겨났다. 여러 가지 아리랑의 기원설 중 대표적인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

(1) ‘정선 아리랑’에 얽힌 유래(거칠현동7현설)

600여 년 전인 조선 초에 고려를 섬기던 선비들 가운데 일곱 분이 불사이군(不事二君, 나라는 망해도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의 충성을 다짐하며 정선으로 은거지를 옮기어 평생 산나물을 캐어 먹고 살면서 지난날에 섬기던 임금을 사모하고 충절을 맹세하며 멀리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며 고난의 심정을 읊었다. 그때 선비들의 비통한 심정을 한시 율창으로 부른 것을 그 지방 선비들이 풀이하여 감정을 실어 부른 것이 지금의 ‘정선 아리랑’이 되었다고 한다.⁵⁾

1) 이보형, “아리랑 소리의 근원과 그 변천에 관한 음악적 연구 ‘한국민요학 제5집’”, 한국민요학회, 1997, 83쪽.

2) 국립국악원, “아리랑”, 국립국악원, 2013, 126쪽.

3)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www.unesco.or.kr)

4) 오용록, “한반도 아리랑 음원 해설집” 중 김연갑의 ‘아리랑은 무엇인가’, 신나라 레코드, 1994, 13쪽.

5) 김연갑, “민족의 숨결, 그리고 발자국 소리 아리랑”, 현대문예사, 1986, 82쪽.

(2) ‘진도 아리랑’에 얹힌 유래(당골래 설화)

진도 한 당골에 풍패가 좋은 무당집 총각이 살았는데, 그 젊은이는 세습 무당 집안에 태어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만 집을 뛰쳐나갔다. 오랜 방랑 끝에 젊은이는 경상도 어느 부잣집에 상머슴으로 머물게 된다. 그런데 그 집에는 예쁜 처녀가 있었는데 둘은 그만 부모 몰래 정분을 나누는 사이가 되고 만다. 결국, 주인집 양반에게 발각되고 급기야는 멍석말이가 되어 매를 맞고 문경새재를 넘고 물길을 건너 진도 땅에 들어와 살며 무업을 이어 가게 된다. 그러나 젊은이는 멍석말이의 후유증으로 급사하고 처녀는 망연자실하여 한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바로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는데 그것이 ‘진도 아리랑’이란 것이다.⁶⁾

(3) ‘밀양 아리랑’에 얹힌 유래(아랑 전설)

밀양 부사 윤 모 씨에게 딸 아랑이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큰소리로 호랑이가 낭자를 물어 갔다고 외쳤다. 윤 부사는 낭자를 찾지 못했고 병이 난 윤 부사 부부는 서울로 돌아가 버렸다. 그 이후로 밀양에 부임하는 부사는 부임하자마자 원인 모르게 죽어가 누구도 밀양에 부임하기를 꺼렸다. 몇 해 후 팔도를 떠돌던 이 진사가 영남루에서 아랑의 혼백과 만나게 되었는데 아랑의 혼백은 그에게 자신의 애통함을 들려주면서 한을 풀어 주길 간청했다. 이 진사는 그 길로 상경하여 과거를 보고 밀양에 부임하여 주 씨 성을 가진 젊은이를 잡아들였다. 그 젊은이는 아랑의 유모를 매수하여 아랑을 영남루로 유인해 달밤에 만나 고백을 하였으나 아랑이 사랑을 받아 주지 않자 아랑을 살해하고 대나무밭에 묻어 버렸다. 그때 밀양의 부녀자들이 아랑의 정절을 기리기 위해 ‘아랑 아랑’하고 불러 오늘날의 ‘밀양 아리랑’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이후 밀양에서는 지금까지도 백중날에 ‘아랑제’가 열리고 있다.⁷⁾

출처 변미혜 외, “인류 무형 문화유산 생생체험 별별수업”, 민속원, 2015, 321~388쪽.

3. 각 ‘아리랑’의 노랫말

(1)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이하 생략)

출처 2집 경기도 민요, 예향 엔터테인먼트

(2) 정선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 주소
강원도 금강산 일만이천봉 팔만구암자 유점사법당 뒤에 칠성단도두모고
팔자에 없는 아들딸 나(남아)달라고 석달열흘 노구뵈에 정성을 말고
타관객리 외로이 난 사람 팔세를 마라(이하 생략)

출처 7인의 명창 경기 민요, (사) 한국 음반 산업 협회

(3) 진도 아리랑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는 열두고개 날 넘은 고개는 단구개로구나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이하 생략)

출처 한국을 여는窓, 아리랑, (주) 벅스

(4) 밀양 아리랑

영남루 명승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저 건너 대숲은 의의한데 아랑의 설운 냇이 애달프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이하 생략)

출처 경기 민요(2), 오아시스 레코드사

6) 오용록, “한반도 아리랑 음원 해설집” 중 김연갑의 ‘아리랑은 무엇인가’, 신나라 레코드, 1994, 16쪽.

7) 김연갑, “민족의 숨결, 그리고 발자국 소리 아리랑”, 현대문예사, 1986, 337~339쪽.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와 오펜바흐 “천국과 지옥”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학년 46~47쪽
제재명	느리게 빠르게	지도서	4학년 306~307쪽

1. 생상스(Saint-Saëns, Charles Camille / 1835~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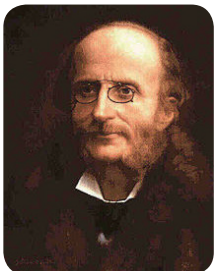


교향시와 오페라 “삼손과 델릴라” 등으로 유명하다. 재능 있는 피아니스트 겸 오르간 연주자였으며, 비평, 시, 수필, 희곡을 쓰기도 했다. 피아노 신동이었던 생상스는 파리 음악원에서 피아노와 오르간을 공부했다. 1857년 유명한 파리의 마들렌 교회 오르간 연주자가 되었고 20년 이상 이 직위를 지켰다. 1861년~1865년에 니데르메이어 학교의 피아노 교수가 되었다. 1871년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후 프랑스 국민 음악 협회를 창시하는 데 앞장섰으며, 그해 최초의 교향시 ‘웅팔의 물레’를 작곡했다. 1878년 아들을 잃었고 3년 후 부인과도 이혼한 후 몇 년간 유럽, 미국, 남아메리카, 중동, 동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며 교향시들을 연주하고 지휘했다. 1880년 무렵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극음악과 기악 분야에서 많은 작품을 쏟아 냈다.

2. 동물의 사육제(Carnaval des Animaux)

1886년 2월 샤를르 르부크에서 열린 사육제 기념 음악회를 위해 작곡했다. 위트와 기지가 넘치는 실내 관현악곡으로, 전체 14곡에 각기 표제 음악적인 제목이 달려 있다. 1곡 ‘서주와 사자 왕의 행진’, 2곡 ‘수탉과 암탉’, 3곡 ‘당나귀’, 4곡 ‘거북이’, 5곡 ‘코끼리’, 6곡 ‘캥거루’, 7곡 ‘수족관’, 8곡 ‘귀가 긴 등장인물’, 9곡 ‘숲 속의 빠꾸기’, 10곡 ‘커다란 새장’, 11곡 ‘피아니스트’, 12곡 ‘화석’, 13곡 ‘백조’, 14곡 ‘종곡’으로 되어 있다.

3. 오펜바흐(Offenbach, Jacques / 1819~1880)



경쾌하고 풍자적인 프랑스 희가극의 한 유형인 오페레타를 만들었다. 오펜바흐는 인물의 성격화와 풍자에 대한 감각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100곡이 넘는 무대 음악을 작곡했으며 그중 대다수가 시대를 초월하여 20세기까지 연주되고 있다.

1849년 오페라 코미크 극장의 관현악단에서 첼로를 연주한 후 테아트르 프랑수아 극장의 지휘자가 되었다. 1855년 자신의 극장인 부프 파리지앵을 열어 1866년까지 감독으로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옥의 오르페우스’를 비롯한 유명한 오페레타 작품을 공연했다. 그는 또 빈에서 오페라 발레 ‘라인 강의 물의 요정’을 제작했으며 1864년 파리로 돌아와 성공작인 ‘아름다운 엘렌’을 제작했다. 그의 유일한 대작 오페라 ‘호프만의 이야기’는 미완성으로 남아 있었는데, ‘환상 오페라’라고 묘사된 이 작품은 1881년 오페라 코미크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4. 천국과 지옥(Orphée aux enfers)

오펜바흐가 작곡한 전 4막의 오페레타로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의 줄거리를 따서 지은 곡이나 올림피아의 모든 신과 그 밖의 여러 신을 그 당시의 타락한 상류 사회에 풍자하여 곡을 썼으며 원명은 ‘지옥의 오르페우스’이다. 오늘날은 주로 서곡이 연주되고 있으며 그 피날레를 장식하는 음악이 ‘프렌치 캥캉’으로 세계적으로 연주되고 있다.

출처 편집부, “현대인을 위한 명곡 해설”, 세광출판사, 1981, 440~461쪽.

5. 캥캉(Cancan)

1830년경 대혁명 후 복고조에 항의하여 생겨난 사교댄스로서 1895~1915년 사이에 유행했으며 치마를 치켜들고 다리를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격정적인 춤이다. 프랑스 화가 로트레크의 그림으로 캥캉 댄스의 모습이 널리 알려져 있다.

출처 이재운·박숙희, “똥도 모르고 자주 쓰는 우리말 1,000가지”, 예담, 2008, 520~521쪽.

빠르기말을 나타내는 용어와 기호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학년 46~47쪽
제재명	느리게 빠르게	지도서	4학년 306~307쪽

1. 빠르기말의 기원

연주에 관련된 음악 용어는 대부분 이탈리아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서양 음악의 역사에 연관된다. 서양 음악의 초기 언어는 라틴어 중심으로 시작되었고, 수 세기 동안 서양 음악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음악이 갖는 참신한 음악 용어가 필요하게 되고, 각 나라 작곡가들이 자국어어를 사용하기 시작함에 따라 이탈리아어의 사용은 감소 추세에 있다.

2. 빠르기말

한국어	이탈리아어	뜻
느리게	Larghissimo	Largo보다 더욱 느리게
	Largo	폭이 넓고 느리게
	Grave	느리고 장중하게
	Lento	느리고 무겁게
	Larghetto	Largo보다는 조금 빠르게
	Adagio	느리고 침착하게
	Adagietto	Adagio보다는 조금 빠르게
	Andante	느린 걸음걸이의 빠르기
	Andantino	Andante보다는 조금 빠르게
보통 빠르게	Moderato	보통 빠르게
빠르게	Allegretto	Allegro보다는 조금 느리게
	Allegro	빠르게
	Vivace	급속히 빠르게, 빠르고 경쾌하게
	Presto	매우 빠르게, 빠르고 성급하게
	Vivacissimo	Vivace보다 더욱 빠르게
	Prestissimo	Presto보다 더욱 빠르게, 아주 빠르게

3. 빠르기의 숫자 표시

한 음악이 갖는 박자와 각 박에 연관된 빠르기 표시 방법이다. 1분 사이에 연주될 박의 수를 음표와 숫자의 형태로 제시하는 방법으로 빠르기말보다 구체적이다.



숫자 표시는 대부분 그 음악이 갖는 각 박에 연관되나, 마디 단위, $\frac{1}{2}$ 박 단위의 숫자도 제시될 수 있다.



출처 김홍인, “음악의 기초 이론”, 수문당, 2008, 140~141쪽.

강강술래의 유래와 놀이 방법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학년 50~51쪽
제재명	강강술래 놀이마당	지도서	4학년 310~311쪽

1. 강강술래의 유래 및 의미

‘강강술래’란 말은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온다’는 뜻이 한자어 ‘강강수래(强羌水來)’ 또는 ‘강강수월래(强羌水越來)’라 표기하여 외적이 물을 건너오니 이를 경계하라는 뜻이라고 풀이하는 때도 있는데, 이는 우리말 ‘강강수월래’의 음역(音譯)이라고 본다. 즉 ‘강강’은 주위 원이란 뜻의 호남 지방의 방언이고, ‘술래’는 돈다는 뜻으로, 이는 어린이의 술래잡기 놀이에서 보이는 바이고 또는 주위를 돈다는 뜻도 포함되었다. 강강술래의 유래로는 첫째, 농경 사회의 수확 의례의 농민 원무에서 유래되었다는 설이다. 옛 농경 사회에서는 가장 큰 축제인 음력 5월의 기풍제(祈豊祭)와 10월의 추수 감사제(秋收感謝祭)가 있었다. 이때 손은 마주 잡고 뛰어놀던 놀이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바 ‘강강술래’의 기원을 이때쯤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창안해 냈다는 설이다. 지금으로부터 360년 전 임진왜란 때 수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수병을 거느리고 왜군과 해전을 하였을 때 적군이 해안에 상륙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한 것으로 특히 전지 부근의 부녀자들이 수십 명씩 떼를 지어 해안 지대 산에 올라 곳곳에 불을 놓아 ‘강강술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2. 강강술래의 구성

“강강술래”는 추석, 정월대보름, 백중, 유두 등 농사일이 적으면서도 세시적으로 의미가 있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 손을 잡고 둥글게 돌면서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이다. 전북과 전남의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6년 국가 무형 문화재 제8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도에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원래 “강강술래”의 놀이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놀이 또한 정해지지 않고 ‘강강술래’를 뛰다가 힘이 들 때 뽀뽀기를 멈추고 지역별로 전해져 오는 개별 놀이를 포함한 부수 놀이를 하게 된다.

현재 국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된 “강강술래”는 부수 놀이 중 몇 종목을 선택하여 순서대로 엮어 연출한 것인데, 주로 ‘긴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 ‘남생아 놀아라’, ‘개고리타령’, ‘고사리 꺾기’, ‘청어 엮기 풀기’, ‘덕석 물기 풀기’, ‘지와 밭기’, ‘대문 열기’, ‘꼬리 따기’, ‘술래’의 순으로 진행한다. 이 중 ‘진강강술래’, ‘중강강술래’, ‘자진강강술래’가 가장 기본적인 놀이이며, 뒷부분의 놀이는 순서가 바뀌기도 한다.

이 교과서에서는 “진도 강강술래”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국가 무형 문화재에 지정된 강강술래는 아니지만 ‘손 치기 밭 치기’ 노래가 제시되었으며, 노래와 놀이가 어렵거나 노랫말이 적절치 않으면 기존의 교과서에서 많이 나오는 악보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1) 긴강강술래-중강강술래-자진강강술래(4학년 50~51쪽)

강강술래의 기본무인 원형의 대열로 서서 오른손을 앞사람과 맞잡고, 왼손은 뒷사람과 맞잡은 형태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상체와 시선은 원의 중앙 쪽으로 약간 비스듬히 향해 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행위는 우리나라 모든 민속예술의 원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비밀상성 즉, 신성성을 의미한다.

‘긴강강술래’에는 두 박에 한 걸음씩, ‘중강강술래’는 한 박에 한 걸음을 떼며 ‘자진강강술래’는 한 박에 한 발로 땅을 차서 뛰고 연이어 같은 발로 다시 뛴다.

(2) 남생아 놀아라(3학년 54~55쪽)

남생이라는 동물의 동작을 흉내 낸 동물 유희 놀이이다. 근래에는 ‘남생아 놀아라’ 노래에 맞추어 두 사람이 손을 꼬아 맞잡고 도는 춤을 추기도 한다. 그러나 본래 남생이 놀이는 강강술래를 노는 놀이꾼 가운데 춤을 잘 추는 몇 명이 원 안으로 들어가 남생이 춤을 추며 노는 형태의 놀이였다. 남생이가 목을 등껍질 속으로 숨겼다가 내밀었다 하면서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양이 우습다 하여 그것을 흉내 낸 것이다. 남생이 역할을 맡은 놀이꾼은 남생이를 흉내 내며 매우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어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3) 개고리타령(개고리 개골청)(4학년 32~33쪽)

개구리를 잡는 모양을 흉내 내는 놀이이다. 본래부터 강강술래는 아니었고 사당패들이 부르던 노래로, 그들에 의해 전남까지 전파된 것으로 보인다. ‘개고리타령’을 부를 때는 원을 돌던 사람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아서 춤을 춘다. 개구리는 잡는 모양을 그대로 흉내 내는 것이다. ‘개고리타령’을 노는 동안 계속해서 엉덩이를 들썩거려야 한다.

(4) 손 치기 발 치기(3학년 64~65쪽)

손 치기 때에는 허리에 손을 두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손뼉을 치고, 발 치기 때에는 발을 왼쪽, 오른쪽으로 친다. 손 치기와 발 치기를 하는 방법은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얼마든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손 치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이 노래의 장점이다.

출처 국립남도국악원·문화체육관광부, “진도 강강술래 DVD 해설서”, 국립남도국악원, 2010, 5~17쪽.

3. 강강술래의 음악적 특징

“강강술래”는 전해지는 지역에 따라 육자배기토리로 되어 있다. 육자배기토리는 ‘미’ 음을 굵고 둥글게 떨고, ‘시’ 음을 꺾어 내리는데 이러한 특징은 주로 ‘긴강강술래’ 또는 ‘중강강술래’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노래가 빨라지면 ‘미’ 음을 굵게 떨거나 ‘시’ 음을 꺾지 못한다. 그래서 ‘자진강강술래’부터 이후의 부수 놀이의 노래들은 대부분 ‘미, 라, 도’로 구성되어 있다.



▲ 강강술래 놀이 모습

리코더 2중주 연습곡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학년 52~53쪽
제재명	리코더 2중주	지도서	4학년 312~313쪽

1. 듀엣 댄스

조금 느리게

작곡자 미상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for two recorders in G major (one sharp) and 6/8 time. It consists of four systems of two staves each. The first system starts with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The tempo is marked '조금 느리게' (Allegretto) and the dynamics are 'mp' (mezzo-piano) and 'mf' (mezzo-forte). The second system continues the melody and harmony. The third system features a 'mf' dynamic and includes accents (>) over several notes. The fourth system includes a 'cresc.' (crescendo) marking, followed by a 'f' (forte) dynamic, and ends with a 'mp' (mezzo-piano) dynamic. The score uses various musical notations including eighth notes, quarter notes, half notes, and rests, with some notes beamed together.

태국 관련 자료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학년 54~55쪽
제재명	이웃 나라 친구들	지도서	4학년 314~315쪽

1. 위치

태국 또는 타이 왕국은 동남아시아의 말레이 반도와 인도차이나 반도 사이에 걸쳐 있는 나라이다. 동쪽으로 라오스와 캄보디아, 남쪽으로 타이만과 말레이시아, 서쪽으로 안다만해와 미얀마와 접하고 있다.



2. 국호 및 면적

▲ 태국 국기

정식 명칭은 타이왕국(Kingdom of Thailand)이며 수도는 방콕이다. 한자 문화권에서는 국호를 음역하여 ‘태국’(泰國)으로도 표기하기도 한다.

1939년까지의 공식 국호는 ‘시암’이었던 것을 ‘타이’로 고쳤다가 1945년부터 1949년까지 다시 국호를 ‘시암’으로 하였고 1949년부터 현재까지 ‘태국’으로 명명되어 이어져 오고 있다. 국토의 면적은 514,000km²로 세계 49위이다. 이는 프랑스나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와 비슷한 크기이다. 동남아시아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는 태국은 자연환경에 따라 크게 네 개의 지역 -북부, 중부, 동북부 및 남부-로 구분되며,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징을 보인다.

3. 문화

태국은 불교의 나라이자 사원의 나라로, 아름다운 왕궁과 많은 불교 사원들이 있다. 주민의 95% 이상이 불교 신자이며, 대부분이 소승 불교 신자이다. 태국의 승려들은 한국과는 달리 육식과 음주를 허용하지만 정오 이후의 식사는 금지하며, 여성은 승려와 접촉할 수 없다. 또한, 조상에 대한 존경은 태국의 정신적 관습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4. 태국의 코끼리

태국의 코끼리는 ‘창타이’라고 불린다. 이 뜻은 영광, 용기, 관용을 상징하며 코끼리는 장수와 신뢰의 동물로 간주한다. 창타이가 그토록 상징적인 동물인 이유는 태국 왕가가 코끼리를 불교의 동물로 생각하여 신성시하기 때문이다. 태국 코끼리는 과거 전쟁에서 왕실 수레에 이용되었으며 오늘날에는 태국 왕실 권위의 상징으로 되어 있다. 현재도 태국 사람들은 코끼리상이나 코끼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한다.

태국은 아열대 기후로서 코끼리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서 한때는 코끼리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코끼리가 많았지만 숲이 농경지로 바뀌면서 지금은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40년 전엔 무려 4만 마리에던 코끼리가 현재는 5천 마리로 줄었으며 야생 코끼리는 2천 마리밖에 없다고 한다. 야생 코끼리 중 몇몇은 상아를 얻으려는 밀렵꾼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거나 국경 지역을 배회하다가 지뢰를 밟아 불구가 되기도 한다.

지금 태국 코끼리들은 훈련을 받아 그림을 그리거나 춤을 추는 등의 재주를 펼치며 살아가고 있다. 곳곳에서 코끼리 보호 구역이나 코끼리 전문병원 등 코끼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코끼리들의 살 곳이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태국엔 새끼 코끼리 훈련소, 코끼리 병원, 코끼리 쇼, 코끼리 트래킹 심지어 코끼리 똥으로 만든 종이 등 코끼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없는 것이 없다고 한다.

출처 외교부, “국가 및 지역 정보” 중 ‘태국’, 외교부 누리집, 2017.

몽골 관련 자료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학년 54~55쪽
제재명	이웃 나라 친구들	지도서	4학년 314~315쪽

1. 위치

중앙아시아의 내륙 국가로 중국의 북쪽, 러시아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는 울란바타르이다. 1,567,000km²의 넓은 영토를 가진 몽골은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국이나 인구는 약 306만 명으로 적다.



▲ 몽골 국기

2. 문화와 종교

조상 대대로 유목민들의 나라인 만큼 목축업을 하고 게르(Ger)에 살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이 많았다. 현대에는 유목민의 수는 줄었지만 가축의 수는 늘어난 것으로 통계 되고 있다. 몽골의 카자흐 유목민들은 양과 염소를 지키기 위해 검독수리를 길들여서 늑대를 사냥하는 오랜 전통이 있다. 현재는 이촌 향도 현상으로 인해서 유목을 하는 이들은 소수가 되었으며 인구의 절대다수는 도시민이다.

옛날부터 유목을 했기 때문에 주식은 고기와 유제품인데, 옛날에는 신선한 말고기, 양고기, 요즘은 채소와 과일을 서서히 먹기 시작하는 중이다. 또 홍차를 함께 먹는다. 현대에는 과반수의 몽골 사람들이 티베트, 부탄 등과 같은 티베트 불교를 믿는다.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톨릭, 정교회,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출처 외교부, “국가 및 지역 정보” 중 ‘몽골’, 외교부 누리집,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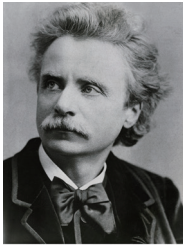


▲ 아시아 대륙 지도

“페르 권트 모음곡” 악곡 해설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학년 56~57쪽
제재명	페르 권트 모음곡	지도서	4학년 316~317쪽

1. 그리그(Grieg, Edvard Hagerup / 1843~1907)



노르웨이의 작곡가로 그리그의 조상이 스코틀랜드에서 노르웨이로 이주해 왔기 때문에 스코틀랜드인의 혈통이다. 어려서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우고 라이프치히 음악원에서 공부했으며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서 리스트와 친하게 지냈다. 1879년 라이프치히에서 피아노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피아노 연주자로서 그리고 작곡가의 지위를 확립했다. 소프라노 가수과 결혼하여 그리그의 가곡은 쉽게 보급되었으며 피아노 연주 외에는 작곡에 전념하였다. 64세가 되던 1907년, 미국에 방문하여 4개월 동안 30회나 연주회를 열었는데 같은 해 9월 병으로 급사하였다. 대표작으로는 ‘서정 모음곡 Op. 54’, ‘피아노 협주곡 a단조 Op. 16’ 등이 있다.

2. 음악극 “페르 권트”의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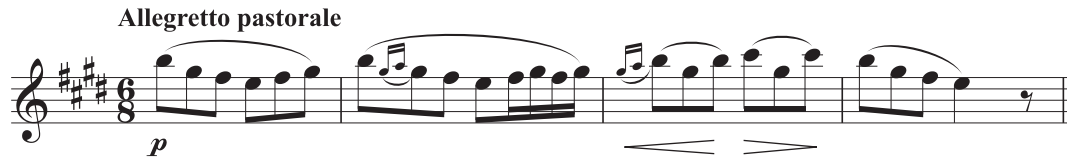
게으름뱅이에 허풍쟁이 몽상가인 페르 권트의 ‘황당한 일대기’라고 할 수 있다. 페르 권트는 아름다운 여인 솔베이가 자기 곁에 있는데도 남의 결혼식장에서 신부 잉그리드를 납치해 산으로 도망친다. 또 산속에서는 산왕의 딸에게 반해 유희를 즐기고 모험을 꿈꾸다가 결국 솔베이를 남겨 둔 채 배를 타고 떠나면 곳으로 떠나게 된다. 모로코와 아라비아의 사막을 떠돌며 사기를 치고 예언자 행세를 하다가 마침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금광을 발견해 엄청난 부자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금은보화를 신고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노르웨이를 눈앞에 둔 상태에서 거대한 풍랑을 만나 결국 알지지가 된다.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와 백발이 된 아내 솔베이의 품에 안겨 인생의 마지막을 맞는다는 이야기이다. 입센의 초기작들이 보여 주는 낭만적 경향의 희곡이지만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듯 보인다. 모험가이자 야심가로 설정된 남자 주인공은 물론이거니와 여성이 구원의 표상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런 면을 보인다.

3. “페르 권트 모음곡”

노르웨이 극작가 헨릭 입센(Ibsen, Henrik, 1828~1906)의 위촉을 받아 노르웨이의 민속 설화를 바탕으로 쓴 희곡 ‘페르 권트’의 무대 음악을 위해 작곡한 것이다. 31세 때 이 곡을 쓰기 시작하여 그다음 해에 완성되었다. 모두 23곡이며 그중 우수한 4곡을 뽑아 먼저 ‘제1모음곡(Suite No. 1 Op. 46)’으로 구성하였다. 곡의 배열은 극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배열하지 않고 오로지 기악의 효과를 배려했기 때문에 각 악장의 균형이 좋아 걸출한 모음곡이 되었다. 그 후 같은 배려하에 다시 4곡을 선정하여 ‘제2모음곡(Suite No. 1 Op. 55)’을 구성하였지만 그리 성공하지 못하고 끝 곡인 유명한 ‘솔베이의 노래’만이 유명해지게 되었다. 교과서에 제시된 곡은 ‘제1모음곡’에 해당하는 곡이다.

(1) 제1곡 아침의 기분

4막의 전주곡이다. 모험가 페르 권트가 모로코에 당도해 맞이한 아침의 풍경을 음악으로 묘사하고 있다. 들으면 누구나 금세 알 수 있는 유명한 곡이다. 플루트가 노래하는 목가적인 주제 선율이 매우 인상적이다



(2) 제2곡 오제의 죽음(Aase's Death)

연극에서는 3막의 첫 곡이다. 어머니 오제가 산에서 내려온 아들의 허풍을 들으며 쓸쓸히 죽어가는 장면이다. “페르 권트” 모음곡 전곡에서 가장 슬픈 곡이라 할 수 있다.



(3) 제3곡 아니트라의 춤(Anitras Tanz)

4막에 등장하는 곡으로 아라비아 추장의 딸 아니트라의 우아하면서도 요염한 춤을 묘사하고 있다. 손가락으로 현을 통기는 피치카토 주법, 동양적 분위기의 선율이 인상적인 곡이다.



(4) 제4곡 산왕의 궁전에서(In der Halle des Bergkonig's)

애초에는 2막에 등장하는 곡이며 호른이 약간 음침한 느낌의 선율을 멀리서 연주하고, 첼로가 현을 통긴다. 북구의 신화에 등장하는 괴물(트롤)들의 춤이 펼쳐지면서, 점점 빠르게, 빙글빙글 도는 느낌의 악상들이 이어진다.



우리나라의 지역 축제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학년 58~59쪽
제재명	지역 축제를 찾아서	지도서	4학년 318~319쪽

축제 이름	누리집	내용	일시	장소	축제에 사용된 음악
정선 아리랑제	www.arirangfestival.kr	정선 아리랑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열리는 축제	10월 중	강원도 정선군	정선 아리랑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	www.baudeogi.com	남사당 바우덕이의 예술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만든 축제	9월~10월 중	경기도 안성시	남사당놀이(풍물놀이 등)
영동 난계 국악 축제	nangye.yd21.go.kr	난계 박연 선생을 기리고 국악의 보급을 위해 개최되는 축제	10월 중	충청북도 영동군	난계국악단 공연, 대중가수 공연 등
전주 세계 소리 축제	www.sorifestival.com	다양한 갈래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 음악 축제	9월~10월 중	전라북도 전주시	해마다 다르나 판소리가 대표적임.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www.maskdance.com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탈춤을 선보이고 탈 문화를 체험하는 축제	9월~10월 중	경상북도 안동시	가산 오광대, 강릉관노가면극, 고성오광대, 동래야류, 봉산탈춤 등에서 사용되는 반주 음악(삼현육각, 풍물놀이 등)과 외국의 탈춤
제주 국제 관악제	www.jiwef.org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단체들이 참여하는 서양 관악기가 중심의 축제	8월 중	제주 특별자치도	해마다 다름. 서양 관악곡 등

‘호잇호잇 따라따라’ 전곡 악보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학년 60~61쪽
제재명	애니메이션음악	지도서	4학년 320~321쪽

김나영 작사 | 유태진·김정아 작곡

Em7 F#m7 Gm7 Am7 D G/D A/D G/D

모 두 모 - 두 나 를 봐 - 요 나 를 따 - 라 해 봐 요

D G/D A/D G/D B♭ C/B♭

호 잇 호 - 잇 따 라 따 - 라 리 듦 맞 - 춰 따 라 해 다음 다 - 음 궁 금 할 - 땀

F/C C/B♭ C F/C B♭/C C

물 음 표 - 두 개 좋 아 좋 - 아 제 일 좋 - 아 느 낌 표 - 세 개

D G/D A/D G/D D G/D

소 리 높 - 어 노 래 해 - 요 누 가 누 - 가 잘 하 나 모두 모 - 여 춤 을 춰 - 요

A/D G/D B♭ C/B♭ F/C C/B♭

궁 디 궁 - 디 Shake it 여 기 여 - 기 모 여 라 - 우 리 만 의 - 세 계

C F/C 1. B♭/C C

뽕 글 뽕 - 글 돌아 라 - 둘 이 둘 이 - 신 나 게 yo yo shake up

D

one two three here we go 아 직 까 지 어 지 러 워 이 런 맵 - 소 사

C G

왔 다 갔 다 이 리 저 리 이 일 을 - 어 켜 나 나 왔 다 - 꿈 에

G A Em F#m G A

- 서 본 - 것 같 아 제 자 리 로 - 고 잉 고 잉

2. B♭/C C D G/D A/D D

이 서 신 - 나 게 월 화 수 - 목 금 토 일 - 다 즐 거 운 - 세 상

'Let It Go' 전곡 악보

단원명	3. 즐겁게 신나게	교과서	4학년 60~61쪽
제재명	애니메이션 음악	지도서	4학년 320~321쪽

로페즈 로버트·앤더슨 크리스틴 작사 | 작곡

$\text{♩} = 69$

Let it go - let it go - 더 이상 참 지 않아 - Let it go - let it go - 나는

이제 떠날래 - 난 이 곳에 서있을 거야 -

외로운 파원 상 관 없 어 - 거릴 두고 보 -- 먼 모든

것을 - 제작아 - 보여 - 나를 두렵게 했던 - 것 이제 겁 나지 - 않아 - - 차가운 공 - 기들 - 속 - 에 - 의

D Am Em D C | 2. C(add9)

지는 강-해 저- 내 가건 던- 세 상-향-해- 이제 소리 칠-거 야- Let it go 외로움따윈 상관없어 -

G Dsus4 Em7 C G Dsus4 Em7 C

그동- 안 내 삶- 은 어둠- 에 갇- 혔었- 지 이제- 는 달- 라 어 제- 의 내--가아--나

G Dsus4 Em7 C(add9) G D/F# Em7

나- 를 찾--지 마 - Let it go - let it go- 더- 이상 참 지 않 아

C(add9) G D Em7 C(add9) G F6

- Let it go - let it go- 나는 이제 떠--날래--- 난 이 곳- 에---- 여기

Em7 Cm/Eb³ G D C(add9)

이 곳---에 ---- Let it go - let it go- 그 누 구도 날 막지 못- 해 -

G D Em7 C(add9) G D

- - - - - woah- - - - Let it go - yeah- - - - -

Em7 C(add9) G D Em7 C(add9)

- na - - na- - Here I stand - - Let it go

G D Em7 C(add9) G

- let it go - - woo - - - - - Let it go -